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내년 1월, 군산조선소 재가동

도, 산업부·현대重工 등과 5차 상호 협약 체결

시설보수·물량 확대 재가동 인력 확보 지원

조선소의 옛 위상 회복 전북경제 도약 기대

전북도민이 5년 넘게 고대해 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다시 가동된다. (관련기사 3면·6면·7면) 전북도는 24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조선소 재가동 관련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1월부터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 송하진 전북도 지사를 비롯해, 강임준 군산시장,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가 서명했다.

협약은 ▲2023년 1월 군산조선소 가동 재개, 물량 및 공정 단계적 확대, 향후 안전하고 지속적 가동, ▲산업부, 고용부, 전북도, 군산시는 지속적인 군산조선소 가동을 위한 인력확보 등 적극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로써, 지난 2017년 7월 가동중단 이후 활기차게 추진해 온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처음으로 공식화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군산조선소는 2023년 1월부터 연간 10만톤 규모로 블록 제작에 돌입, 재가동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연내에 군산조선소 시설보수를 위해 약 1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조선업 인력수급에 맞춰 점진적으로 블록제작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하고 지속적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근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맞춰 LNG·LPG 탱크도 군산에서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지속성을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으로, 지난 2017년과 같은 가동중단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업무협약식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함께 서해안 미래 친환경 조선산업 중심지



①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군산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②문재인 대통령과 송하진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전북 군산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재가동 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먼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블록 제작을 시작으로 LNG·LPG 탱크 제작 등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선업 인력양성 등 생산 인력수급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전북도 조선업 생태계를 조속히 재건하고, 조선산업 기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고도화 센터, ▲무탄소 적용가능 엔진 및 핵심 기자재 개발·실증을 위한 육상테스트베드,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중소형·특수선 중심의 핵심 인프라를 집적화해 조선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는데 올인할 계획이다.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됨에 따라 군산시 및 전북도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가동 첫해인 2023년에는 연간 10만톤 규모의 블록 제작을 위해 최소 600명에서 많게는 1천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고, 이에 따른 지역내 생산유발효과는 약 1,98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인력 확보 상황에 따라 군산 조선소 배정 물량을 확대하고, 향후 LNG·LPG 탱크 제작 등 안전하고 지속적 가동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효과

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 가동시 (2016년 기준) 지방세 납부 69억원, 군산지역가계 소비지출 약 600억원(인건비의 30% 정도 지역내 소비 추산), 생산유발효과는 약 2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체결로 지자체와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의 성공적인 재가동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선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및 장비 보수를 위해 연 천억 원 규모로 시설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며, 협력업체 모집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와 고용부, 전북도, 군산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가장 시급한 시간인 조선업 인력확보 및 양성 등 인력 수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는 산업부 2022년 조선업 생산 기술 인력양성 사업에 600명의 전북 몫을 이미 확보(28.8억 원)했으며, 고용부 훈련수당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올해 총 660명의 조선업 인력양성을 위해 모집부터 교육훈련, 취업연계에 이르기까지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날 협약체결에 이르기까지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 반영 및 범도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비롯해 중앙부처 및 정치권, 현대중공업에 재가동 건의 및 요구 활동을 끊임없이 펼쳐왔다.

특히, 2021년에만 4번의 현대중공업 경영진 면담 및 5번의 전북도-군산시-현대중공업 3자 간 실무협의를 갖고, 군산조선소의 조기 재가동 실험을 위해 힘썼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울산에서 이루어진 경영진 면담 이후,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기류가 형성됐으며, 11월부터 양측간 실무협의를 통해 재가동 방식 및 발표 시기 등을 조율해왔고 이날 MOU 체결 방식으로 대외 공개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신영대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내 정치권의 역할도 컸다.

특히 신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압박과 설득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송하진 도지사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됨으로써 전북도 조선업 생태계는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며 "최근의 전세계적인 조선업 호황과 맞물려 군산조선소도 예전의 위상을 조속히 되찾을 것이며, 이를 계기로 전북 경제도 한 층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

도, 자원순환 범도민 실천운동 추진
매월 10일 '1회용품 없는 날' 지정 운영

전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1회용품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원순환 범도민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재활용율이 감소하면서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자원순환 범도민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매월 10일을 1회용품 없는 날로 정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도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중심의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이 각종 단체나 기업 등 민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자율적 참여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제도를 활성화해 우수업소를 적극 발굴·홍보해 포상, 홍보, 물품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해나갈 방침이다.

범도민 실천운동과 함께, 현재 도내에 3,226개의 거점배출시설(분리배출 전용 구역)을 2023년까지 10%씩 늘려 4,722개까지 확대,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계획이다.

도는 청정전북을 더 오래, 더 많은 아들과 나누기 위해서는 생활속 자원순환 실천이 중요하며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거대한 목표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비로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호주 도 환경보전과장은 "작은 실천하나가 커다란 결과를 바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자연이 빛은 보물, ☆

낭만이 숨쉬는 부안에서 만나요

BYEONSAN

내소사

변산해수욕장

직소폭포

부안군
BUAN-GUN